

그림에게 말 걸기 - 4

얼굴 속 얼굴을 그리다 _ 자화상

글: 남우주 그래픽 디자이너 / 무지크바움 실장

자신을 그리는 행위는 셀카를 찍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자신을 고정하고 전시하고 기록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행위일 수 있지만, 셀카에는 자신의 형상과 그 이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없다. 거울을 보면서 ‘살이 좀 췌나? 화장이 잘 안 먹네. 웃는 게 어색해.’ 등의 생각은 자신의 오리지널한 얼굴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한다.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얼굴에 확신이 있다. 그런데 자신의 얼굴을 거울이나 카메라로 비춰보는 것과 달리 그러하다고 하면 확실했던 얼굴의 의미는 조금 달라진다.

이젤이 있고 이젤 앞에 내가 앉아 있다. 이젤 옆에 거울이 나를 비춘다. 거울을 보며 익숙하면서도 왠지 좀 어색한 나를 확인한다. 어떤 표정이 좋을까? 셀카처럼 순간을 포착할 수 없어서 표정을 오랜 시간 고정해야 한다. 내 얼굴은 거울을 통해 내 시선의 대상이 된다. 얼굴이 자신의 시선을 느끼고 그 시선을 알아차린 얼굴을 또다시 시선이 알아채는 순간, 얼굴은 미묘하게 바뀐다. 자신의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떠올려봐도 생경한 경험이다. 자신의 얼굴이 자기 시선의 대상이 될 때 시선과 얼굴의 팽팽한 교차 속에서 어떤 내밀한 욕망이 솟아난다. 그때가 바로 확신했던 얼굴 뒤, 숨겨진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여기 이젤 앞에 앉아 있는 세 명의 화가가 있다. 한 명은 값비싼 모피코트를 입은 긴 장발의 훈남이고, 또 한 사람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맞본 뒤 희미하게 미소짓고 있는 노인이다. 마지막

사람은 자신만의 예술적 신념과 현실의 문제가 팽팽하게 당겨져 의식이 끊어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다.

뒤러 _ 나는 나를 공표한다

뉘른베르크 출신의 모피코트를 입은 남자는 이미 목판 연작 <요한묵시록-1498>으로 판화가로서의 명성을 얻은 뒤였다. 그는 1494년 이탈리아 여행을 통해 르네상스 미술에 크게 영향을 받은 상태였고,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에 한껏 부풀어 있다. 그는 지금 여러 각도로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있다. 그러다 정면을 바라본다. 아직 자화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이다. 신과 왕족을 제외한 정면 자화상을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시대라 조금 걱정스럽지만, 그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직감한다. 유럽은 항해술의 발달로 신대륙을 발견하고 원근법의 도입으로 입체적 공간을 재현할 수 있었으며, 인쇄술을 통해 삽화와 글자가 대중들에게 퍼져나갔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에 고무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피렌체를 중심으로 르네상스의 시대였고, 중세의 엄숙주의와 속죄의 무게에서 벗어나 신을 닮은 인간의 존엄을 발견하고 있었다.

여러 각도로 모습을 비춰보던 그는 정면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 그리고 결심한 듯 정면의 얼굴을 그려나간다. 길게 늘어뜨린 곱슬머리와 수염을 정교하게 채색하고, 우아하게 들어 올린 한 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그는 야망이 있었다.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인간의 빛을 드러내고 싶었다. 동시에 재능을 가진 자를 표현하고 싶었다. 마침내 캔버스엔 아름다우면서도 완벽한 르네상스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그림의 오른쪽 여백에 황금색으로 글귀를 남긴다.

“

나 뉘른베르크 출신의 알브레히트 뒤러는 28세에 지워지지 않는 물감으로 나의 모습을 그렸다.

(Albertus Durerus Noricus ipsum me propriis sic effingebam coloribus aetatis anno XXVIII)

”

뒤러는 후에 막시밀리안 황제의 초상을 그릴만큼 성공한 화가가 된다. 인체 비례와 원근법에 대한 이론서를 펴냈으며, 자신의 서명이 찍힌 판화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었다. 그림, 지성, 사업 수완 등 뭐 하나 빠질 게 없을 뿐 아니라 얼굴까지도 잘생긴 화가. 많은 평론가는 그의 자화상에서 나르시시즘을 읽어내지만, 어떤 의미로 그랬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일시한 자화상이라고 보면 나르시시즘으로 귀결되지만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라는 의지로 읽어내면 후에 일어날 종교 개혁과 궤를 같이하는 생각으로도 읽어낼 수 있다. 뒤러는 과연 거울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어쩌면 그는 비범함이라는 개인의 욕망과 인간의 존엄이라는 다가올 시대의 욕망을 동시에 보았는지도 모른다.

렘브란트 _ 나는 성경대로 살았다

노인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다. 그는 거울 속의 모습을 보며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며 지나가던 이십 대와 삼십 대를 떠올린다. 그땐 그가 그린 초상화 하나쯤은 집에 걸어 두어 고급스러운 풍모가 갖춰진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초상화 주문은 밀려들었고 그만큼 부와 명성이 쌓여갔다. 그는 이탈리아와 플랑드르 거장들의 값비싼 그림을 사들이고 세계 각지의 귀한 골동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고급 저택도 사들였다. 모든 게 탄탄대로였다. 하지만 삼십 대 중반부터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한다. 1640년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내 아스키아마저 1642년 병으로 죽었다. 아내가 죽은 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한 헨드리키에와의 사랑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재혼하면 전 아내의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유언에 따라 그는 헨드리키에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 화풍도 변하기 시작한다. 명암의 극적인 대비로 인물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그려냈던 그는 조금씩 내면의 모습을 정적으로 그려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 초상화 주



Self-Portrait(뒤러 자화상, 1500) 67.1x48.9cm

/ 출처 : www.pinakothek.de



Self-Portrait(렘브란트 자화상, 1668) 82.5×65cm / 출처 : www.wallraf.museum

문은 끊기고 그는 점점 고독하고 궁핍한 삶으로 들어갔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얼굴을 지긋이 바라본다. 젊은 날 성공과 천재성으로 한껏 고무된 자신의 자화상들을 떠올려본다. 프로테스탄트였던 그는 구원과 은총에 관심이 많았다. <십자가에 세워지다-1633>에서는 예수를 매다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지다-1633>에서는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 넣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엔 큰 차이가 있었다. 죄를 지은 인간과 속죄로 구원받는 모습을 동시에 그려 넣었지만, 자신의 삶이 종교적 신념과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성공에 취해 오만했으며 개신교에서 강조하던 금욕과 절

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렘브란트는 삶의 질곡을 겪은 자신의 삶 전체가 성경의 알레고리로 느껴진다. 죄를 지은 인간이 비로소 회개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드라마와 자신의 삶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자 슬며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자화상은 미스터리한 미소와 왼편에 희미하게 드러나는 얼굴로 많은 추측을 낳았다. 어둠 속 인물을 못생긴 노파의 얼굴로 보는 사람들은 그리스의 전설적인 화가 제옥시스의 에피소드(못생긴 노파를 그리다 웃겨 죽었다는 일화)와 이 그림을 연결한다. 염세적인 헤라클레이토스(어둠 속 인물)와 쾌활한 데모크리토스(렘브란트)를 빌어 죽음에 대한 삶의 승리를 묘사하려고 했다는 의견도 있다. 어둠 속 인물을 경계의 신 테르미누스로 추측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전 생애를 반추한 자의 마지막 미소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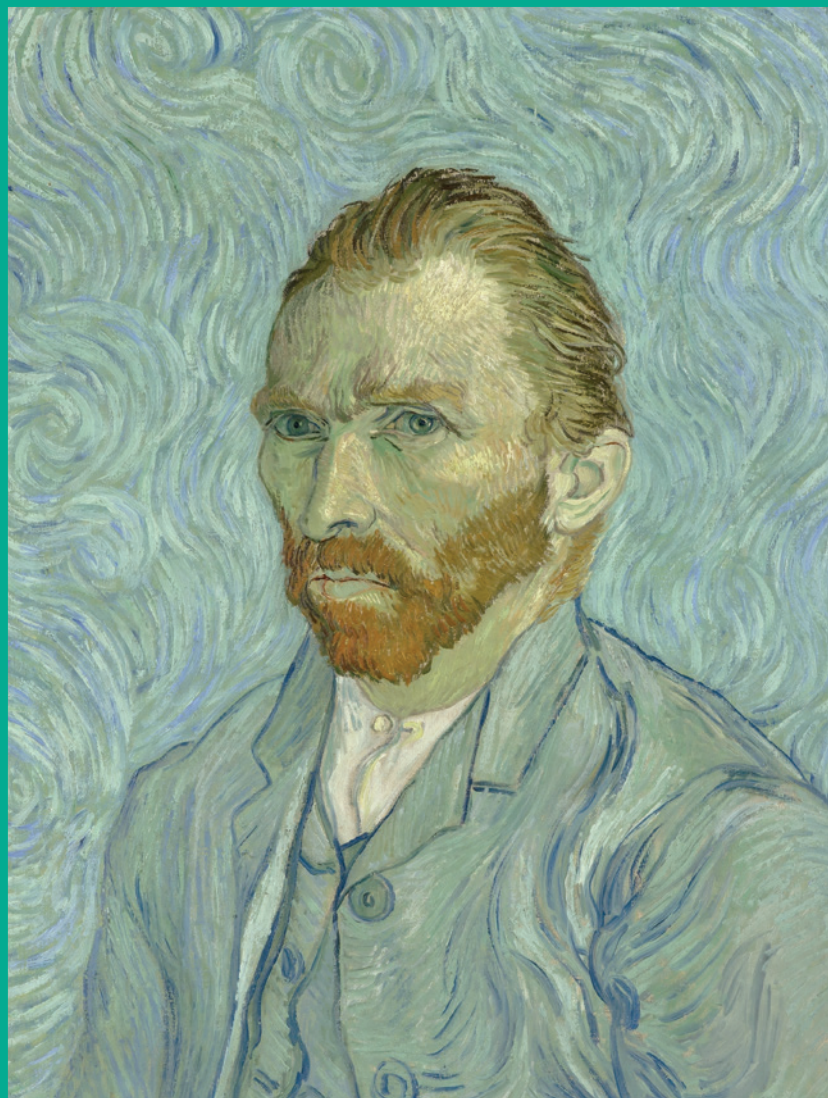
반 고흐 _ 나는 예술가입니다

이젤 앞에 앉은 남자는 거울 속 정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 이제야 잘려 나간 왼쪽 귀가 보이지 않는다. 병원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야 한다. 그는 아직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자신을 바라본다. 뭐가 문제였을까? 예술을 위해서 부단하게 그림을 그려왔을 뿐인데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사람이나 패배자로 취급한다. 무엇보다도 내 그림을 사지 않는다. 동생 테오에게 빌어다 쓴 돈이 15만 프랑은 족히 될 것 같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꾸준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점점 더 진실하고 완결된 그림을 그릴 수 있

을 거라 믿는다. 그런데 나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민폐만 주는 것 같다.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나 최하층의 사람으로 비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괴벽스러운 사람이, 그 속에 무엇을 가졌는지 보여줘야지. 그러기 위해선 그림을 더 그려야 한다. 내가 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내 정신이 내가 아닌 상태가 되기 전에 나는 내가 믿는 감각의 세계를 열어젖힐 것이다. 눈에 힘이 들어간다. 주변에는 생명의 불길로 가득하다.

그는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거침없는 붓질로 자신의 마지막 자화상을 그려낸다. 그리고 1년 뒤 고흐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자연을 사랑한 고흐는 자연과 가까운 사람들을 그리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는 ‘나뭇가지를 चु는 가난한 여인과 모래를 나르는 가난한 농부’와 같은 초라한 인물들에 향수를 느끼며 그들의 삶에 고귀함을 느꼈다. 그는 세련되고 복잡한 도시보다 자연과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물들과 문명에 가려진 생명의 힘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

귀를 자른 정신병자, 해바라기의 화가, 강렬한 색채의 마술사... 고흐를 수식하는 말들은 많지만, 고흐가 성실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대한 사색과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는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화가는 깊이 고뇌하고 있다고, 정말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라고 고백한다. 실제로 그는 10여 년 동안에 구백여 점의 그림과 천여 점이 넘는 습작을 남겼다. ‘무엇인가를 찾고 있고, 아주 열중하고 있는 사람이 예술가’라 생각한 고흐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서도 부단하게 무엇인가를 찾았고 끝까지 그것에 열중했다.



Self-Portrait(고흐 자화상, 1889) 54.2x65cm / 출처 : www.musee-orsay.fr

얼굴 속 얼굴을 그린다

나를 그리는 행위는 내가 아는 얼굴의 뒤편, 요동치는 또 다른 얼굴을 그릴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주관과 객관의 모호한 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일이다. 그 과정엔 끈질긴 질문과 대답이 동반되지만, 때론 스스로 내린 대답에 속기도 한다. 그래서 자화상은 과장과 거짓이 되기도 하고 이질적인 모습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변화무쌍한 욕망(자신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의 흐름 속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진실할수록 얼굴 뒤의 얼굴은 그 생명력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자화상은 화가가 지금 처해있는 욕망의 좌표와 형태를 캐내기 위한 내면의 심문 과정이다. 이젤 앞의 세 남자는 얼굴 뒤의 얼굴을 진실하게 그려냈을까? 평가는 작품을 보는 감상자의 몫이다. 